

사회

수능 D-2...수험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휴대전화 아예 집에 두고 가라

MP3 등 전자기기 휴대하면 부정행위 간주

8일 치러지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고사장에 가져오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4교시 선택과목(사회탐구·과학탐구 등) 시험을 치를 때 수험생에게 모든 선택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는 대신 수험생은 지정된 시간에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판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 실시요령과 시험장·수험표 사진확인 원칙 등을 담은 '수험생을 위한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5일 공지했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인 8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해야 하며 7일 예비소집에는 꼭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MP3제 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실수로 휴대전화 등을 내놓지 않고 개인 보관하다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가 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첫번째 과목 오후 2시50분~3시20분 ▲두번째 과목 오후 3시22분~3시52분 ▲세번째 과목 오후 3시54분~4시24분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두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첫 과목 시간에 기다려야 하며 한 과목 선택자는 첫번째, 두번째 과목 시간에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대기한다.

해당 시간 과목이 아닌 문제지는 개인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놓아둬야 한다. 두 개 과목의 시험지를 함께 보거나 자신의 선택과목 이외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가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수능 한파 없다

8일 구름 많고 평년기온 유지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8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고 비나 눈 없이 구름만 많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8일 광주·전남은 북쪽을 지나가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고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 예상 최저기온은 8도, 낮에는 최고기온은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수능 한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6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를 뿌리는 기압골은 예비소집일인 7일 아침부터 동쪽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기압골이 느리게 이동하는 탓에 6일 낮까지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서해와 남해 일부 바다에서는 수능 시험 전날 새벽까지 물결이 높을 것으로 보여 도서지역 수험생은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험장별 날씨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특별기상정보' 메뉴에서 학교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8일 오전과 오후 듣기평가시간에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 시간에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국

1191개 시험장 주변의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항공기 비행이 통제되는 시간은 오전 8시35분부터 23분간, 오후 1시5분부터 30분간 두 차례이다. 이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은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운항하게 된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한두 차례 비, 전국 날씨 정보, 광주 날씨, 광주·전남 수능 한파 없다 관련 날씨 정보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사흘 앞둔 5일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수능 시험지를 고사본부로 나르고 있다. 광주 수험생 2만1802명, 전남 1만9093명이 시험을 치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논란 관사 임대·매각 검토”

소통중시 교육정책 추진...재선 도전 의향도

취임 2주년 장휘국 광주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5일 시 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간담회를 열고 '교육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바탕으로 더 객관적이고 현장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업무를 맡게 된다.

장 교육감은 "이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한 점으로 미뤄 교육감 재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 확실하게 뿌리내리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재선 도전 의향을 내비쳤다.

학부모·교원단체 등이 엄단을 촉구하고 있는 교원단체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만 놓고 보면 엄벌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교육감 관사와 관련 "제기된 논란을 존중하며 임대나 매각 등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자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기 주요 성과로 무상 급식 전면 실시와 비리 근절을 들었으며 학생인권과 교권 사이의 안금조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 교육감은 임기 후반기 역점 사업과제로 ▲학교문화혁신 ▲학교교육력 제고 ▲교직원 역량 강화 ▲진로진학센터 활성화 ▲교육협력 사업 강화 등을 꼽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신안 무인도 6곳 '특정도서' 지정

건축물 신·증축, 야생동식물 포획 금지

환경부는 생태계의 보전 가치가 크고 지형·지질 자원이 우수한 전남 신안군 일대 무인도 6곳을 특정도서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도서는 183곳으로 늘어났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증축, 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는 국가보훈지역이다. 이번에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은 구도·저도·다라도·대술개도·외연산도·국출섬이다.

면적은 3868~3만967㎡로 가장 작은 대술개도의 경우 축구장 넓이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지만 종 다양성이 풍부하고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크다.

가장 넓은 구도에는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구렁이가 서식한다. 난대성 식물인 모밀잣밤나무와 돈나무 등이 자라 식물 종도 다양하다.

저도는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검은머리물떼새가 산다. 은나무와 졸참나무·소사나무 등이 골골과 혼효림(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여있는 산림)을 이뤄 식물 종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찬바람 불면 노인 사망 급증 '사실'

12월중 사망자 수 월평균보다 13% 높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노인 사망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험개발원이 2006~2010년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니 70세 이상 노인의 사망자 수는 12월에 4605명으로 월평균보다 13% 높았다.

노인 사망의 주원인은 암(26%), 심장질환(15.9%) 순이었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12월에 집중됐다.

29세 이하 젊은 층은 노인과 반대로 높은 유가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젊은 층은 교통사고(21.4%), 자살(18.8%)에 의한 사망이 많았다. 전 연령층을 포함하면 연중 사망 발생 건수는 12월이 가장 많고 7월이 가장 적다. 사망 원인은 암(37%)이 가장 높고 심장질환(10.2%), 뇌혈관질환(6.4%)이 뒤를 이었다.

보험개발원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비중이 높은 노인은 겨울철 난방과 보온에 유의해야 하고 젊은 층은 교통사고 등 재해사망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유가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허위증거 보상금 의혹

어촌계장 무혐의 처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허위증거를 제출해 보상금을 갹긴(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경찰에 입건된 어촌계장(광주일보 6월27일자 7면) 중 박모(50)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

았다.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상경찰이 허위증거로 고속도로 건설공사 보상금을 받은 어촌계장 박모(50)씨 등 48명을 입건했으나 조사결과 박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당시 계원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ju travel packages, including '신비의 섬 제주 탐방' and '제주도 골프투어' with various tour options and prices.